

형상화된 '부처님 가르침' 한눈에

출판사 '한국 미의 재발견' 총서 14권 완간

"석탑은 어떻게 쌓아올린 것일까?" "법종은 어떻게 제작했을까?" "전각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최근 완간된 <한국 미의 재발견> 총서 14권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총서는 출판사가 '서양문화에 밀려 경시되었던 자랑스런 우리 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첫 선을 보인 기획시리즈다. <불교조각 I, II> <탑> <불교회화> <불교건축>과 같이 온전한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책뿐 아니라 범종과 사리장엄구 등을 다룬 <금속공예>,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소개하는 <과화문화> 등을 통해서도 총서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부피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의 아름다움을 '재' 발견하기 위해 시작한 이 시리즈는 독자들이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수(前 경주박물관장)와 고고학자인 이견 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감수를 맡았고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 김병철 한국예술평화협회 교수, 유미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등 24명의 전문가가 집필을 담당했다. 이들은 딱딱한 이론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정리했고,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

장 가까운 사진이 사용됐다. 일례로, 지금까지 발견된 불상 중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독성 출토 금동여래좌상'부터 1872년 제작된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화'까지 100여 점의 조각상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불교조각 I, II>는 책장을 넘기며 사진만 훑어보더라도 대략적인 조각사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글 중간 중간 '알아두기' 항목을 두어 '초조대장경 목록' '한국 범종의 과학적 구성과 울림소리' '불보살의 옷에 나타난 문양' '석탑을 쌓는 방법'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책 말미에 실린 '도움이 되는 글과 그림'에서는 용어 해설과 시대 변천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연표(年表)와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불상이나 탱화 등을 단순히 '예배'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불자들이라면 이번 총서에서 조형언어를 통해 형상화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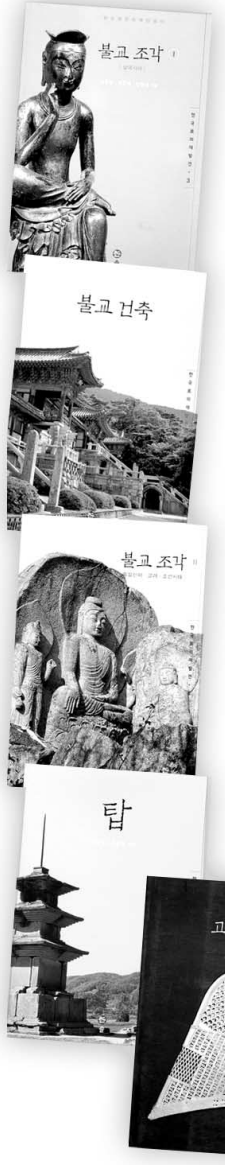
회화·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 집필 컬러사진 3000여장...딱딱한 이론 대신 쉽게

리한 의미 있는 시도가기 때문이다. <불교건축>의 경우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발전한 사찰 건축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을 담아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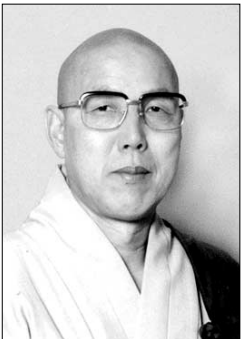
책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전문 집필진. 미술사학자 강우방 이화여대 교

어는 최대한 풀어썼다. 특히 <탑>에서는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국보 39호)처럼 지난 1996년 해체·수리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 등 최신 성과들을 대폭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의 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문 컬러의 도판과 사진. 각 책마다 200~300장씩, 전 시리즈에 걸쳐 3000여



사명대사 선시·계송 풀이



"보통 학계에서 사명대사의 '사'자를 '泗'로 쓰고 있지만 '泗'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밀양 표충사에 소장된 <사명당대사집> 판각본에 쿿을 사(泗)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밀양 표충사에 주석하고 있는 거부 스님(前 수덕사 승가대학장·사진)은 최근 펴낸 <사명대사어록>에서 이

명당대사집>의 서문을 쓴 조선시대 문신 허균이 "이 어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기를 바라며 사명대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했던 뜻이 바로 거부 스님에 의해 오늘날로 이어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님은 결재철에는 원문을 번역하고, 산철이면 곁말을 떼고 1~2차례씩 현장 답사에 나섰다. 글의 배경이 되는 사찰과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명대사의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서다. 스님은 "답사를 통해 사명대사가 승병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느낀 여러 소회와 충정, 도반들과의 애뜻한 마음이나 세월의 무상함 등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앞으로 사명대사의 '난중일기'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등을 엮은 <분충서난록(奮忠緜錄)>도 펴낼 예정이다.



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2002년 표충사의 사명대사 유품을 열람하다 우연히 <사명당대사집>의 목판본과 판각본을 발견했고, 이를 우리말로 풀이한 주석서 <사명대사어록>으로 펴냈다. <사명당대사집>에는 사명대사의 선시(禪詩)와 계송(偈頌), 사찰 기문(記文) 등이 담겨 있다.

스님은 "사명대사의 사상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책으로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사

천상의 미소 라다크

라다크의 미소를 찾아서 글·사진 여태동 | 이문아침 | 1만원

인도를 여행했던 사람이라면 열차가 몇 시간씩 지연돼도 불평하지 않고, 시체가 동동 떠다니는 갠지스강에서 목욕하는 인도인들의 이야기가 그리 새롭지 않다.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가 쓴 <라다크의 미소를 찾아서> 역시 삶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인도와 인도인에 대한 놀라움이나 동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계 기자 12년의 경력은 이러한 표피적 현상에서 불교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데서 빛을 발한다.

한 달간의 여행은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다람살라에서 만난 티베트인들에게서는 그들이 겪은 설움과 고통, 50여년에 가까운 망명정부 생활에 지쳐 서서히 자라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 등을 읽어낸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천상의 미소'를 보여주는 동자승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답을 찾는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라다크를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거주장소로 가져왔던 추상적인 불교의 곁집을 던져버릴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고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일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밖에 불교 4대 성지를 찾아 본 감상과 인도 여행상식은 인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책

■ <대자유인 선사> (김형중 지음, 조계종출판사, 7천원) = 김형중(동대부교) 박영동(동대부교) 우인보(동대부중) 교법사가 중국과 삼국,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사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간단히 정리해 엮었다. 달마대사부터 한암 스님까지 38분의 선사들을 만날 수 있다.



■ <1분 앉으면 1분 부처> (니시지마 와후 지음, 유 키미카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7천원) = 니시지마 와후의 <불교문답>과 <좌선법>을 한 권으로 묶어 출했다.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그림으로 읽히는 '좌선법'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은이 자신인 '우도노인'과 가공의 인물인 '좌선법'의 문답을 통해 사성제와 보리심, 인연법, 좌선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



■ <노자 도덕경> (김광하 지음, 너울북, 1만5천원) = 불교인권복지단체 '작은 손길' 김광하 이사장의 <도덕경> 해설서. 김 이사장은 <도덕경>을 81장으로 나누어 보는 기존의 답론에서 벗어나 전체를 하나로 이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자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해석에 객관성을 더하려 노력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옹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이장의	은정희	소명출판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방의지장	조용한	정신세계출판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6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광
7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8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9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모원	행복한숲
10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행자재보	오래된미래

도서 안내: (02)737-0695

<전장 선사님 인가제대 지원 문제 관련 선사의 저서>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전통록 전 5권
바로보인 백암록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품쳐도 세상을 부신아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선문영송 6권까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중도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 수록 내용

- 공화 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 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래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 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지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 생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성명학 - 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협 601175-52-016521

연락처 (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명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옹장,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음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목측 발바닥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손발이 2만여발로 인동 불공을 울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발바닥에서는 원적위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골관절염,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만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천전했을 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가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장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유명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